"어느 양계단지보다 사육밀도가 꽤 높은 지역이죠"

□취재/함경숙 기자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국도를 따라 포천읍을 지나 운천에 들어서면 계분냄새가 코를 진동시키고 불이 환히 켜진 즐비한 계사들을 볼 수 있어 누구나 양계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이 곳은 15년전 인근의 미군부대가 철수하면서 미군부대를 근거지로 기생하며 생활하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지금은 대규모 양계단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출발

초창기 생계유지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는데 주민들의 이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양계업을 적극 권장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백수 내지 몇천수 단위로 규모면에서는 작았으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제법 괜찮다고 알려지자 주위 사람들이 양계업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150만수의 대규모 양계단지로 변모하였다.

심각한 인력난은 포천지역도 마찬가지

포천지역의 양계업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곳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력난이다.

사육규모가 대부분 2~3만수 이하가 되고 있기에 과감한 시설투자로 기계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계사의 기계화 도입으로 인력소모를 절약하는 것이 인력난 해결의 최선책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반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과감한 시도가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의 농가가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자본여력이 부족하여 기계화 도입을 희망하지만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값싼 외국의 축산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황에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양계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회의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라는 한 회원의 말에서 현재의 고통을 잘 알 수 있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계화 도입도 시급하다

그러나 규모가 제법 큰 농장에서는 기계화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계사구조에 적합한 기계화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느냐가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가령 계분처리를 위해 스크레퍼를 설치하고 이에 알맞는 계분건조시설을 갖춰 놓았지만 지금은 그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고물'(?)로 버려지는 예가 허다하다.

이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것으로 계사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조화를 이

■ 포천산란분회 회원명단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7리 2반
- 전화 : (0357)32-5269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석	포천군 영북면 자일3리(협동축산)	32-6364
이 해 영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41(협신농장)	0353)52-4994
갈 창 업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355	52-2087
윤 완 호	포천군 영북면 자일1리 344-1	32-6263
윤 경 호	포천군 영북면 자일1리 344-2	32-6261
박 천 석	포천군 영북면 자일3리	32-6084
이 태 식	포천군 영중면 양문2리 536(삼성농장)	32-6751
신 은 균	포천군 영북면 문암리 253(벧엘농장)	32-5990
고 의 영	포천군 영북면 야미리 2반9(중앙목장)	32-9966
장 동 수	포천군 영북면 자일3리 530(샘터농장)	32-5913
이 평 섭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반	32-6193
김 박 평	포천군 영북면 자일3리 467(문화농장)	32-5843
윤 홍 호	포천군 영북면 자일1리 341	32-5691
천 용 수	포천군 영북면 자일2리 1009-6(평화농장)	32-5905
김 정 식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377-5(자연농장)	32-6768
이 화 성	포천군 영북면 자일3리 472(선화농장)	32-5351
박 기 만	포천군 관인면 사정리(승일농장)	33-5342
김 낙 주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 494	32-5736
배 수 명	포천군 영북면 자일1리 331(대성농장)	32-5711

▲ 배수명 분회장

루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기종의 기계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 그 기계의 생명은 좌우된다"고 천용수(천화원 대표)총무는 말한다.

계분처리공장 설치로 계분으로부터의 해방요구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분처리는 포천지역에서도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상수도 오염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외적인 제재를 심하게 받지 않지만 이웃 주민들의 민원사항중 첫번째로 꼽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계분공장이 1개 설치되어 있지만 거의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계분을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어 어느 정도 계분이 건조되었을 때 외부의 상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몇몇 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당국에 계분처리공장 설치를 건의했지만 이미 계분공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만이 계속되고 있어 융통성 없는 행정편의 위주 정부시책에 항변하고 있을 뿐이다.

포천산란분회 모체는 포천계우회

대규모 양계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양계농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퍼져 나갔다.

그러던중 지난 88년 장동수씨를 중심으로 하여 10여명의 발기인이 주축이 되어 포천계우회를 조직하였다.

현재 6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그중 20여명이 본회에 가입하여 포천산란분회가 태동된 것이다.

매월 8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란가격 전망, 적절한 노계도태시기 등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계란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회원들에게 별도로 엽서를 발송하고 있다.

현재 배수명 회장을 중심으로 윤흥호 부회장, 천용수 총무가 솔선하여 조직을 운영해 가고 있다.

"정식적인 분회로 조직된 것이 최근이기에 별다른 사업을 계획, 추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채란 양계업이 안고 있는 1회용 난좌사용이라든가 고시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라고 배수명 분회장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을 설명한다.

앞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관심이 집중될 때 포천지역의 양계업은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당당히 설 수 있으리라고 믿어본다.